

국내에서 노른자 4개가 들어있는 계란 발견

노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110억분의 1

국 내에서 노른자가 4개 들어있는 계란이 발견되어 관심을 끌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64세)는 지난 12월 22일 부인이 시장에서 사 온 왕란을 먹기 위해 후라이팬에 계란을 깨는 순간 계란 노른자가 4개인 것을 발견하고 본회(대한양계협회)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본회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드문 현상임을 알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면서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서 노른자가 3개가 들어있는 계란을 발견한 사례는 있었지만 4개가 들어있는 계란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지난 2월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영국에 사는 26살 톨리씨가 노른자가 4개인 계란을 발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영국 달걀정보서비스(British Egg Information Service)에 따르면 계란에서 2개의 노른자가 나올 확률은 1,000개 중 1개이고, 4개의 노른자가 나올 확률은 110억분의 1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실은 SBS, MBN, 노컷뉴스 등 TV, 라디오, 신문사 등을 통해 ‘로또 당첨보다 더 낮은 확률’ 등의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다.

제보/김동진 편집장